

# 강진군,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 도입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  
7개 관광스타트업 유치·육성  
2027년까지 생활 인구 실증

강진군이 외부 관광객의 단순 단기 방문을 넘어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소비하고 정착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도입한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BETTER里(베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 공모에 '청년과 체류객이 머무는 로컬살이 실험실 in 강진'이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베터리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고유한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스타트업을 유치 및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단기 소비 구조를 체류형 소비로 전환하고 반복적인 방문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향후 청년 창업 및 정착 가능성까지 타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 사업에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7개 관광스타트업이 참여한다.



강진군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 BETTER里(베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체류형 관광 모델 실증에 나선다. 사진은 최근 병영면 일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현장 기념사진 촬영 모습. <강진군 제공>

각 기업은 강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독자적인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세부적으로 ▲다산서옥 출판 레지던시 '구텐베르크' ▲월출산 빈집 재생 베이스캠프 '네이처' ▲여전사

리트릭 '노매드' ▲발달장애 가족 스테이 '삼이일심' ▲강진형 위케이션 '스트리밍하우스' ▲강진 투어 액티비티 '엑스크루' ▲쉽과 시적이 공존하는 학교 '위이어' 등이다.

이들은 아웃도어, 복지, 교육, 기술 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관광·체류 모델을 실험하며, 군은 이번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반값 여행, 빈집 활용 마을호

텔, 푸소(FU-SO) 체류 프로그램 등 핵심 군정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오는 2027년까지 2개 년에 걸쳐 단계적 실증을 거친 뒤,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화 모델을 모색한다.

앞서 강진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병영면 일원에서 참여 기업 7곳과 한국관광공사,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등 관계 기관이 모여 현장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적인 숙박 인프라 및 거점 공간 확보 방안, 유희 공간 및 마을호텔 활용안, 지역 상권 연계 방안, 지자체 공식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등 실무적인 협력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지난해 해당 사업을 먼저 추진했던 봉화군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연계 노하우와 현장 사업들을 공유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참여 기업들이 강진에 실제로 머물며 기획한 체류 모델이 지역 주민과 상권에 실질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 연계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나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주도권 정조준

### 혁신도시발전지원청 신설 제안

나주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추진을 추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으로,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유치 사례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은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나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인 '혁신도시발전지원청'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세종시 건설청과 같은 국가 차원의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으로,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유치 사례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은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 목포시장 선거 다자구도 재편에 '들쭉'

강성휘·박홍률·여인두 3인 경쟁  
민주당 경선 내용 속 원팀 난항  
조국혁신당 세 확장 최대 변수

목포 지역 정가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유증과 조국혁신당의 본격적인 세 확장 장이 맞물리면서 치열한 본선 다자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가 따르면 민선 6·8기에 이어 3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최근 조국혁신당에 전격 입당한 가운데, 민주당은 강성휘 후보를 본선 주자로 최종 확정했으며, 정의당에

서는 여인두 예비후보가 출마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강 후보와 이호균 후보 측간 고소·고발 검토 등 극단적인 마찰을 빚어 사실상 선거 대비 '원팀' 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근 지역구 박지원 의원의 강 후보 공개 지지에 따른 이른바 '상왕 정치' 논란과 캠프 내 특정 세력의 인사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본선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지역 위원장인 김원이 국회의원을 향한 불공정 경선 관리 책임론도 확산하는 실정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박 시장의 합류를 기점으로

기초의원 선거까지 후보를 내며 공격적인 세 걸출에 나섰다.

손해원 전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목포시의원 라선거구(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에 출마해 원도심 재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3선 최홍림 시의원 역시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 권력 지형에 상당한 파급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홍을 수습하고 측근 정치 프레임에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지가 본선의 관건"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약진과 사법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맞물린 만큼 최종 민심의 향배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영광군 구직·창업 희망자 자격증 교육비 지원

영광군은 13일 "지역 구직자와 창업 희망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군민으로, 군은 지난 10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올해 1월1일 이후 지출한 교육비의 50%를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교육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하고 실제 자격증 취득을 완료해야만 지원금이 나오며, 신청 희망자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교육 과정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교육 과정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청년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 19-49세 취업 역량 밀착 지원

영암군은 청년들의 구직 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 밀착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면 가동하며 지역 정착 유도에 나선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확보한 국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존 연령층을 대폭 확대한 19-49세 청년으로 사회 초년생과 경력 단절 청년은 물론, 특정 비자(F-2·F-5·F-6)를 소지한 지역 외국인 청년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핵심 프로그램은 청년기케 '달빛청춘마루'를 거점으로 1대1 맞춤형 상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이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영암읍 청년센터 및 삼호읍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고, 수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고용 정책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상시 접수한다.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기르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도군 '인공지능 활용'

### 특화 디저트 상품 개발

#### 특산물 활용 제품 10종 선별

진도군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지역 우수 농수산물물을 결합한 맞춤형 특화 디저트를 개발하고 실질적인 상품화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에 나선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1층에서 주민과 방문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활용 진도 대표 디저트 성과 전시 및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된 창업반 교육을 통해 개발된 10종의 특화 디저트를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품된 제품들은 울금, 흑미, 구기자, 가루쌀, 돌미역 등 진도 대표 특산물을 주원료로 활용해 시장성을 검증받았다.

군은 품평회 현장 시식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디저트 3종을 최종 선정해 생산과 판매, 마케팅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전면 지원하며, 조기 상품화를 위해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전문 제조업체와 협력하는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으로 완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진도=박세원 기자>

출시된 제품은 단기 팝업 행사와 누리소통망(SNS) 홍보를 거쳐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온라인 쇼핑물 판매 상품으로 적극 활용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최신 AI 기술과 지역 특산물을 접목한 이번 시도가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6차 산업 활성화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 내달 '국제해조류심포지엄' 개막

### 블루카본·바이오 전략 등 모색

완도군이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내달 2-7일 열리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중 6-7일 이틀간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완도국제해조류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조류학 연구자와 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

유한다. 캐나다 앨런 크리츨리 박사와 KAIST 김승도 교수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해조류 블루카본 IPCC 연구 동향, 기후변화 대응 고수온 적합 양식종 개발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해조류 기반 바이오 에너지 및 대체육, 사료 등 기후 테크 활용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며, 전통 양식과 스마트 양식의 공존 전략 등 실효성 있는 어업 대책도 다뤄진다.

추진단은 해외 연사를 대상으로 완도 해조류·전북 양식장 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지난 2017년 개최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해조류 심포지엄 참석자 단체 사진. <완도군 제공>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등 군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